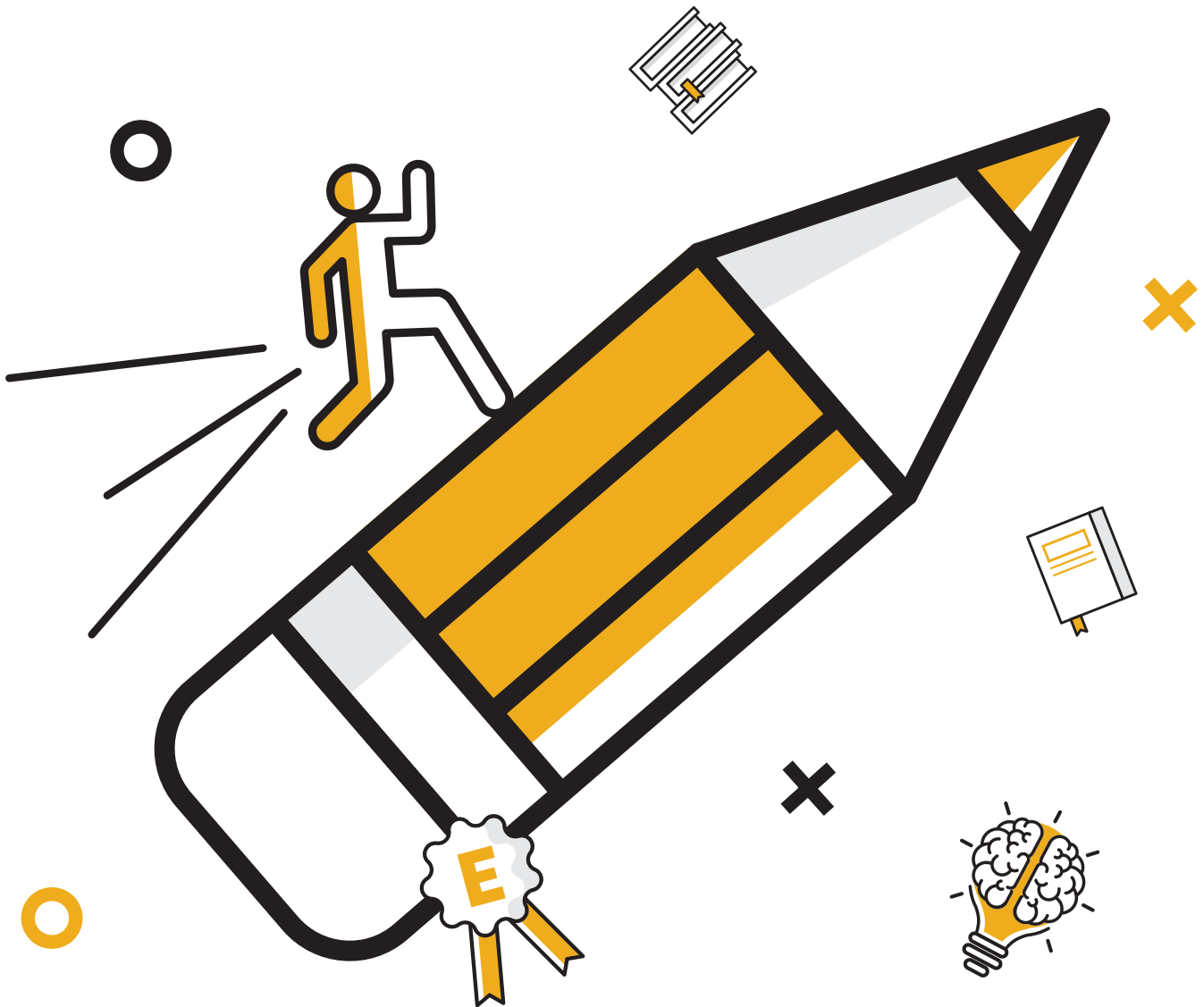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부법

EBS 중학

뉴런



국어 1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마, 네놈의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내 차를 들이받았단 말야. 이런 고급차를 말야. 이런 미련한 놈, 왜 눈은 째려, 째리긴. 그러니 내 차에 흠이 안 나고 배겼잖나. 내 차는 인마, 여자들 손톱만 살짝 닿아도 생채기가 나는 고급차야 인마, 알간?”

그러고는 거울처럼 티 하나 없이 번들대는 차체를 면면히 훑어보더니 “그러면 그렇지.” 하고 환성을 질렀다. 아마 생채기를 찾아낸 모양이다.

나 “도망가라, 어서어서 자전거를 번쩍 들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수남이는 자기편이 되어 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반할 수 없었다. 이상한 용기가 솟았다. 수남이는 자전거를 마치 검부리기처럼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질풍같이 달렸다.

정말이지 조금도 안 무거웠다.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나게 달렸다.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갈기는 듯한 쾌감까지 느꼈다.

다 다 들고 난 주인 영감님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릎을 치면서 통쾌해한다.

“잘했다, 잘했어. 맨날 촌놈인 줄만 알았더니 제법인데, 제법이야.”

그러고는 가게에서 쓰는 드라이버니 펜치를 가지고 자전거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옆드려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주인 영감님이 수남이의 눈에 흡사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 속으로 정이 떨어진다. 주인 영감님 얼굴이 누런 퐁뽕인 것조차 지금 깨달은 것 같아 속이 메스껍다.

라 혹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순간 수남이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이 후닥닥 일어서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좁은 방안을 헤맸다. 수남이의 눈앞에는 수갑을 차고, 순경들에게 끌려와 도둑질 흉내를 그대로 내보이던 형의 얼굴이 환히 떠오른다. 그리고 서울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아버지의 얼굴도 떠오른다.

마 소년은 아버지가 그리웠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 줄 어른이 그리웠다. 주인 영감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해 안 난 것만 좋아서 “오늘 운 났다.”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수남이는 짐을 꾸렸다. 아아,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남이의 얼굴은 누런 퐁뽕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 박완서, 「자전거 도둑」

27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 ① 수남이는 일부러 고급차에 생채기를 냈다.
- ② 수남이는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쳐서 달아났다.
- ③ 수남이의 형은 도둑질을 한 죄로 순경에게 끌려갔다.
- ④ 수남이는 순경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가게를 떠났다.
- ⑤ 수남이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가게에서 일을 했다.

28 이 글에서 수남이가 주인 영감을 떠난 이유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 (마)의 내용을 참고하여 쓸 것.
- ‘아버지와 달리’와 ‘~ 때문이다.’라는 말을 모두 넣어 쓸 것.

29 (나)에서 수남이가 자전거를 타지 않고 들고 도망을 간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다)의 내용을 참고하여 쓸 것.
- ‘~ 때문이다.’ 형태의 한 문장으로 쓸 것.

30 갈등을 중심으로 (마)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갈등의 원인이 제시된다.
- ② 갈등이 새롭게 발생한다.
- ③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다.
- ④ 갈등이 해소되고 주제가 부각된다.
- ⑤ 갈등이 고조되면서 긴장감을 조성한다.



EBS

• 둘째 마당 •

문법

01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어휘 체계

02

국어의 품사와 특성

대단원 평가



-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 국어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이해하고 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

더 알아 두기

+ 언어의 기능

- **지시적 기능**: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킴.
예 이것은 꽃이다.
- **정보적 기능**: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함.
예 내일 비가 온다고 한다.
- **명령적 기능**: 상대방에게 특정 반응이나 행동을 요구함.
예 이리로 오너라.
- **친교적 기능**: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
예 안녕하세요?
- **정서적 기능**: 감정을 드러내어 표현함.
예 그 노래 참 좋아.

+ 언어의 역사성

- **생성**: 새로운 말이 생겨남.
예 텔레비전, 택시, 스마트폰, 수능 등
- **변화**: 소리나 뜻이 달라짐.
예 '나무'의 표기와 발음 변화: 나무 → 나무
'어리다'의 의미 변화: 어리석다 → 나이가 적다
- **소멸**: 쓰이던 말이 사라짐.

예

옛날	오늘날
온, 백(百)	백(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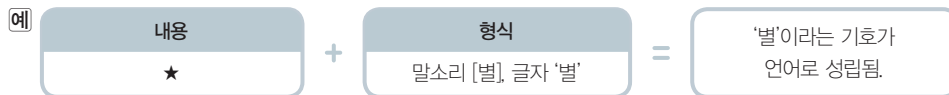
1 언어의 본질

(1) 언어의 개념

-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말 또는 글
- 말소리/글자(형식)와 의미(내용)가 결합되어 이루어짐.

(2) 언어의 본질

① **기호성**: 언어는 내용과 형식이 결합하여 성립된 기호 체계이다.



② **자의성**: 의미와 형식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다.

예 ★: 한국어 '별', 영어 'star', 중국어 '星', 일본어 'ほし'

③ **사회성**: 언어는 한 언어 사회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예 '★'을 의미하는 '별'을 개인이 마음대로 '결'로 바꾸어 쓸 수 없다.

④ **역사성**: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예 '어여쁘다'라는 말은 '불쌍하다'에서 '예쁘다'로 그 의미가 달라졌다.

⑤ **창조성**: 이미 익힌 언어를 통해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 쓸 수 있다.

예 밥 먹자. → 과자 먹자. 빵 먹자. 과일 먹자. 등

⑥ **규칙성**: 각 언어마다 지켜야 할 일정한 규칙이 있다.

예 별을 많이 떴다. (×)

별이 많이 떴다. (○)

예로 개념 확인

(가) 어떤 사전에는 '얼짱'이라는 단어가 올라 있더라고, 10여 년 넘게 꾸준히 그리고 폭넓게 쓰였으니 까 사전에 등록했겠지. '얼짱'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몸짱'이라는 단어로 확장된 걸 보면 그 단어의 생명력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 ❶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얼짱'을 국어사전에 등록한 걸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우리가 쓰는 말 중에는 국적 불명의 단어들이 많고 지금도 새로 만들어지지만, 사실 문법을 파괴하며 만들어진 신조어들은 반짝 쓰였다가 ❷ 대부분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 말도 자연처럼 스스로 정화 작용을 하는 거지. 몇 가지가 살아남았다는 건 그것이 생명을 가질 만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일 거야.

(나) 요즘 들어 많이 쓰는 ❸ '넌널하다'는 사전에는 '넌찍하다'는 뜻의 함경남도 방언으로 올라 있습니다. '얼척없다'는 '어처구니없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랍니다.

사투리는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적인 자리나 문서에선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절대 좋고 나쁨으로 구분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화의 다양성을 잘 보여 주는 자산이지요. 지역 고유의 정감이 뚝뚝 묻어나는 사투리를 들으면 괜스레 마음이 푸근해지는 기분, 저 혼자만 느끼는 걸까요?

2 국어의 어휘 체계

(1) 어휘 체계 분류의 기준: 어휘의 기원(어원)

- ① 고유어: 본디부터 우리말에 있었거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순우리말
 -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말이 많음.
 -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임.
 - 감각이나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음.
 - 예 어머니, 밥, 가다, 구수하다, 졸졸, 노르스름하다 등
- ② 한자어: 중국의 한자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
 - 주로 개념어, 추상어가 많음.
 - 고유어에 비해 좀 더 정확하고 분화된 의미를 가짐.
 - 예 우정(友情), 시계(時計), 수리(修理), 수정(修整) 등
- ③ 외래어: 외국어로부터 빌려 와서 우리말처럼 쓰는 말
 - 다른 나라의 문명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유입됨.
 -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우리말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예 버스(bus), 피아노(piano), 커피(coffee), 세일(sale) 등

3 국어의 어휘 양상

(1) 표준어: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규범으로 정한 말

(2) 방언: 하나의 언어에서 지역이나 사회 계층에 따라 달라진 말

- ① 지역 방언
 - 지역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말
 - 동일 지역 사람들에게 친밀감과 유대감을 주지만 타 지역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줌.
 - 예 옥수수: 옥시기(강원도), 강내이(경상도), 옥수깥이(충청도) 등
- ② 사회 방언
 - 연령, 성별, 계층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말
 - 같은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감을 형성하지만 다른 집단과의 소통이 어려움.
 - 예 낚다: 좋은 기사를 취재하다(기자 집단) / 넙대: 꿈(심마니 집단)

더 알아 두기

+ 사용 양상에 따른 어휘의 분류

- **은어:** 특정 집단이 비밀 유지를 위해 만들어 쓰는 말
예 생선(청소년 은어: 생일 선물)
심심마니 은어: 산삼
- **전문어:** 전문 직업인들이 쓰는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말
예 어레스트(의학 전문어)
- **유행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말
예 혼밥족(혼자 밥을 해 먹고 지내는 사람들)
- **관용어:**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말
예 손이 크다(쓰임이가 크다)
- **새말:** 새롭게 생겨난 말
예 스몐비(스마트폰 좀비)

+ 방언의 가치

- 방언은 표준어 제정의 기초가 됨.
- 방언은 국어의 여러 가지 특성을 보여 줌.
- 국어의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됨.
- 같은 지역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함.
-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담 아냄.

❶ **사회적 약속의 과정:** 어떤 말이 한 사회에서 통용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회 구성원끼리 그 말을 특정 의미를 지닌 기호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회적 약속이다. 이는 언어가 본질적으로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❷ **언어의 소멸:** 언어는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소리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며, 사라지기도 한다. 표현하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의 언어가 경쟁하다가 어느 하나가 경쟁에 밀려 소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 준다.

❸ **지역 방언:** 우리나라의 지역 방언은 행정 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강원도 방언, 충청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제주도 방언'과 같이 크게 분류하기도 한다. 대체로 지역 방언은 '여수 방언, 강릉 방언, 공주 방언, 김해 방언' 등과 같이 작게 분류하기도 한다. 지역 방언은 거리가 멀수록 서로 큰 차이를 보이며, 거리가 가까운 곳일수록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언어의 본질

지문 연구

- **해제:** 이 글은 언어의 본질을 기호성,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규칙성, 창조성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주제:** 언어의 본질

내용 연구

'물'의 내용과 형식

내용	형식
무색, 무미의 액체	[물]이라는 소리, '물'이라는 글자
↓	
'물'이라는 기호가 언어로 성립함.	

구절 풀이

- 우리는 '무색, 무미의 액체' ~ 소통을 한다.: '물'이라는 언어가 그 내용이 '무색, 무미의 액체', 컵에 담겨 있는 '그것'이며,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이 '물'이라는 글자나 음성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 왜냐하면 일정한 ~ 있기 때문이다.: 어떤 말이나 글이 사회 내에서 의사소통의 도구인 언어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전체 또는 대부분이 그 언어의 의미와 형식의 결합에 동의해야 한다.

낱말 풀이

- * 무미: 아무런 맛이 없음.
- * 기호: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부호, 문자, 표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 필연적: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또는 그런 것.
- * 고정되어: 한번 정한 대로 변경되지 아니하여.
- * 유입: 문화, 지식, 사상 따위가 들어옴.

(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하게 마시는 물 한 잔, 건강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 이때 '물'이라는 말을 살펴보자. '무색, *무미의 액체', 컵에 담겨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는 '무색, 무미의 액체', '그것'을 '물'이라는 글자나 음성으로 드러내어 서로 소통을 한다.

여기서 언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일정한 형식, 즉 *기호로 표현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언어의 기호성

(나) 그런데 그 형식은 언어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은 '물'이라고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water'라는 형식을 사용한다. 중국어에서는 '水[shuǐ]'라는 형식을 사용한다. 이로 보아 '물'을 반드시 '물'이라고만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물'이라는 형식 또는 기호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붙인 것이다.

▶ 언어의

(다) 언어의 형식이 언어권마다 다르다고 하여 한 언어권 안에서 개인이 마음대로 형식을 바꾸어 쓸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물'을 '불'이라고 바꾸어 "물 한 잔 줘."라는 표현을 "불 한 잔 줘."라고 말한다면 올바른 소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일정한 의미를 표현하는 형식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약속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언어의

(라) 그런데 언어에 대한 사회적 약속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가 '물'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조선 시대에는 '물'이라는 형식으로 표시했다. 즉 조선 시대에는 '물'이라는 형식으로 약속했다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물'이라는 형식을 쓰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라 언어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며, 새로운 문물의 *유입에 따른 새로운 말의 생성, 사회 변화에 따른 언어의 의미나 소리의 변화 등 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 언어의 역사성

(마) 한편, 언어는 실제 사용될 때 일정한 규칙에 따르는 성향이 있다. ② '시원한 물 좀 마셔.'라는 언어 표현은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이 정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 표현을 '물 좀 시원한 마셔.'라고 바꾸어 쓰면 규칙에 어긋나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된다. 이러한 규칙은 언어를 쉽게 익히도록 하며,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규범이 된다.

▶ 언어의 규칙성

(바) 하나의 단어나 문장의 규칙을 익힌 후에는 그 규칙을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시원한 물 좀 마셔.'라는 말을 통해 규칙을 익혔다면 '시원한 음료 좀 마셔.'라는 말을 만들어 쓸 수 있다. 또한 '차가운 물 좀 마셔.'와 같은 말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점은 동물의 언어와 달리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가장 큰 특성이다.

▶ 언어의

01

중요

(가)~(마)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본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가): 언어의 자의성
- ② (나): 언어의 사회성
- ③ (다): 언어의 기호성
- ④ (라): 언어의 창조성
- ⑤ (마): 언어의 규칙성

02

(나)~(바) 중 <보기>의 설명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 보기 ▶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언어는 공동체 내의 소통의 도구로서 사회적 합의이며 문화의 계승이나 발전의 밑바탕이 된다.

- ① (나) ② (다) ③ (라) ④ (마) ⑤ (바)

03

(나)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옷’, ‘의상’은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 ② 우리말의 ‘어머니’는 영어에서 ‘mother’로 쓰인다.
- ③ ‘옥수수’라는 말은 ‘강내이’, ‘옥썴시기’ 등의 사투리로도 불린다.
- ④ ‘사람의 복부’, ‘물 위를 떠다니는 교통수단’을 의미할 때 우리는 모두 ‘배’라고 한다.
- ⑤ ‘다리’는 원래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랫부분’을 칭하는 말이었으나 그 형태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상다리, 지겟다리’라고도 사용하고 있다.

04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날 우리가 ‘나무’라고 일컫는 대상을 조선 시대에는 ‘나모’라고 일컬었다.
- ② ‘어여쁘다’라는 말은 ‘가엾다’라는 뜻에서 ‘예쁘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 ③ 우리나라에서 ‘바빔바빔’이라는 소리는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가 아니다.
- ④ 서양 악기인 피아노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지칭하는 말인 ‘피아노’도 그대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고 있다.
- ⑤ ‘즈믄’이라는 말은 숫자 ‘1,000’을 나타내던 우리말이었는데, ‘천(千)’이라는 한자어가 쓰이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05

㉡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높임의 방법이 다르다.
- ② 주체를 설명하는 말이 가장 나중에 온다.
- ③ 시간에 따른 호응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 ④ 꾸미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위치한다.
- ⑤ 조사의 쓰임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I 서술형

06

(라)와 (바)를 바탕으로 인간의 언어가 발전하게 된 원인과 결과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 긍정적인 결과가 드러나도록 쓸 것.
- 한 문장으로 쓸 것.



100점 특강

언어의 본질

기호성	언어는 일정한 내용(의미)을 일정한 형식(기호)으로 담아낸다.
자의성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사회성	언어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으로 성립한다.
역사성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한다.
규칙성	각 언어마다 일정한 규칙이 있어 이 규칙에 따라 언어를 사용한다.
창조성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쓸 수 있다.

2 책상은 책상이다

페터 빅셀

지문 연구

- **해제:** 이 글은 한 개인이 사물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어 부름으로써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가는 과정을 그려 낸 단편 소설이다.
- **주제:** 개인이 만든 언어 사용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단절

내용 연구

'남자'의 삶의 모습

- 평범한 생활 도구 사용
- 일상적인 행동 반복

- 색다른 삶을 원함.
- 사물의 이름을 바꾸어 부름.

반복적인 일상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당연한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짐.

구절 풀이

- **패종시계**는 언제나 똑딱거렸다.: 주인공인 남자의 일상이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었음을 표현한다.
- **무엇 때문에 ~ 안 된단 말인가.**: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의 임의적인 관계를 인식하면서 같은 언어권의 사람들이 대상을 똑같이 부르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음을 표현한다.
- **그래서 그는 ~ 누워 있었다.**: '침대'라는 언어 형식을 '사진'으로 바꾸어 사용한 문장으로,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 준다.

낱말 풀이

- * **패종시계**: 시간마다 종이 울리는 시계. 보통 추가 있으며 벽에 걸어 둔다.
- * **일과**: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는 일정한 일.
- * **세상만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 그의 방에는 의자 둘, 책상 하나, 양탄자 한 장, 그리고 침대와 옷장이 하나씩 있다. 조그만 책상 위에는 *패종시계가 하나 놓여 있다. 그 옆에는 오래된 신문과 사진첩이 놓여 있고 벽에는 거울과 사진이 한 장 걸려 있다.

이 늙은 남자는 아침마다 산책을 했다. 오후에도 한 차례 산책을 했다. 이웃 사람들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고, 저녁때면 자기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이러한 *일과는 결코 변하는 법이 없었다. 일요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을 때면 패종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패종시계는 언제나 똑딱거렸다.

▶ 반복적이고 한 일상을 살고 있는 한 남자

(나) 그런데 보통 때와는 다른 날이 한번 있었다. 그날도 햇볕이 났고,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았고, 새들은 지저귀었고, 사람들은 친절했고, 아이들은 놀고 있었다. 보통 때와 달랐던 점은 이 남자에게 갑자기 *세상만사가 마음에 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

▶ 늙은 남자가 색다른 삶을 희망함.

(다) '똑같은 의자, 침대, 사진. 나는 언제나 책상을 책상이라 말하고, 그림을 그림이라 말하고, 침대는 침대라 부르고, 의자는 의자라고 부른다. 도대체 왜 그렇게 불러야만 한단 말인가?'

① 프랑스인들은 침대를 '리', 책상을 '타블'이라고 말하고, 그림은 '타블로', 의자는 '세에즈'라 부른다. 그 말들을 사용하여 그들은 의견을 주고받는다. 중국인들도 그들끼리 역시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한다.

*'무엇 때문에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단 말인가.'

▶ 남자가 대상을 똑같이 부르는 것에 대해 을/를 가짐.

(라) "이제는 달라지는 거다."

하고 그는 외쳤다. 그리고 지금부터 침대를 '사진'이라고 말하기로 했다.

"나는 피곤해. 사진 속으로 들어갈 테야."

라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오랫동안 사진 속에 누워 있었다. 그럼 의자는 무엇이라고 부를까,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는 의자를 '패종시계'라고 부르기로 했다. 즉 그는 일어나면 옷을 입고 패종시계 위에 앉아 책상 위에 팔을 짚었다. 그러나 ①책상은 이미 ②책상이라고 불리지 않았다.

책상은 이제 양탄자라고 불리게 되었단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 남자는 (㉠)을/를 떠나 옷을 입고 (㉡)의 (㉢) 위에 앉아 있게 된 셈이다.

▶ 남자가 사물의 을/를 바꾸어 부르기 시작함.

0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우화적인 성격을 띤다.
- ②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③ 인물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일상적인 삶의 공간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02 (가)~(라)에서 알 수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순수한 동심으로 상상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다.
- ② 일상적 삶의 반복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 ③ 주변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
- ④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 ⑤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03 (다)에서 '남자'가 가진 의문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 ① 사람들의 언어는 동물의 언어와 어떻게 다른 것일까?
- ② 우리가 쓰는 언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 ③ 앞으로 언어를 발전시키려면 우리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 ④ 언어의 내용과 형식은 필연적인 관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일까?
- ⑤ 인간의 언어는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나?

04 ㉠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프랑스인들은 '침대', '책상', '그림', '의자'의 이름을 자주 바꾸어 부른다.
- ② '리', '타블', '타블로', '세에즈'는 프랑스인들이 사물에 임의로 붙인 이름이다.
- ③ 프랑스어의 '리', '타블', '타블로', '세에즈'는 언어의 내용(의미)에 해당한다.
- ④ 프랑스에서는 '리', '타블', '타블로', '세에즈'의 순서에 따라 언어를 구사한다.
- ⑤ 최근 프랑스에서는 '리', '타블', '타블로', '세에즈'와 같은 말을 새로 만들어 쓰고 있다.

! 서술형

05 ㉡과 ㉢의 차이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형식(기호)'과 '내용(의미)'을 언급할 것.

06 ㉠~㉢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 | | ㉠ | ㉡ | ㉢ |
|--------|------|------|---|
| ① 사진 | 양탄자 | 패종시계 | |
| ② 사진 | 패종시계 | 양탄자 | |
| ③ 양탄자 | 패종시계 | 시계 | |
| ④ 양탄자 | 시계 | 패종시계 | |
| ⑤ 패종시계 | 양탄자 | 시계 | |

100점 특강

남자의 태도

나는 언제나 ~ 그렇게 불러야만 한단 말인가?

프랑스 사람들의 언어인 '리(침대)', '타블(책상)', '타블로(그림)', '세에즈(의자)'를 반드시 '리', '타블', '타블로', '세에즈'와 같은 기호(문자, 발음)로 표현해야 하는가? 다른 기호를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에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프랑스인들은 침대를 ~ 부르면 안 된단 말인가.

프랑스인, 중국인이 각기 자신들이 정한 말을 사용하여 소통하는데, 한 번 정한 '침대'라는 기호를 '사진'이라는 기호로 바꾸어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왜 사람들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일까?

언어가 사회적 약속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함.

→ 남자는 언어를 사회적 약속을 바탕으로 한 소통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혼자만의 언어를 만들어 쓰고자 한다.

2 책상은 책상이다

내용 연구

사회적 언어와 남자의 언어

사회적 언어	남자의 언어
침대	사진
책상	양탄자
의자	패종시계
신문	침대
거울	의자
패종시계	사진첩
옷장	신문
양탄자	옷장
사진	책상
사진첩	거울
남자	발
발	아침
아침	남자
울린다	세워 놓다
언다	바라본다
누워 있다	울린다
서 있다	언다
세워 놓다	펼친다

구절 풀이

- 모든 사물의 이름이 바뀌었다.
다: 남자가 모든 사물의 이름을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었다는 의미로, 그 언어는 사회적 소통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 옷을 수밖에 ~ 없었던 것이다.
다: 남자는 자신만의 언어로 사람들이 쓰는 말을 해석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말일 수밖에 없었고, 남자는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여 옷을 수밖에 없었다.
- 이보다 훨씬 ~ 된 것이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남자가 자기만의 언어로 대화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남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가) ㉠ 침대를, 그는 ㉡ 사진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언어 책상을, 그는 개인이 만든 언어 양탄자라고 말했다.

의자를, 그는 패종시계라고 말했다.

신문을, 그는 침대라고 말했다.

거울을, 그는 의자라고 말했다.

패종시계를, 그는 사진첩이라고 말했다.

옷장을, 그는 신문이라고 말했다.

양탄자를, 그는 옷장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그는 책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진첩을, 그는 거울이라고 말했다.

▶ 남자가 여러 단어를 바꾸어 씀.

(나) 이 남자는 이것이 즐거웠다. 그는 온종일 연습을 했고, ㉢ 새로운 단어들을 암기했다. * 모든 사물의 이름이 바뀌었다. 그 자신은 남자가 아니라 발이었다. 발은 아침이었다. 그리고 아침은 남자였다.

▶ 남자가 새로운 단어를 통해 즐거움을 느낌.

(다) ‘울린다’라는 말은 ‘세워 놓다’로,

‘언다’라는 말은 ‘바라본다’로,

‘누워 있다’라는 말은 ‘울린다’로,

‘서 있다’라는 말은 ‘언다’로,

‘세워 놓다’라는 말은 ‘펼친다’로 바꿔 보자.

▶ [] 들을 새로운 단어로 바꿈.

(라) 이 늙은 발은 오랫동안 사진 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아홉 시에 사진첩은 세워 놓았다. 이 발은 얼어 올라왔고 아침이 바라보지 않도록 이 발은 옷장 위에 자신을 펼쳤다.

▶ 남자의 언어를 사용한 표현

(마) 이 남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웃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누군가

“당신은 내일도 축구 경기를 보러 가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듣거나, 또는 누군가

“벌써 두 달 동안이나 계속 비가 오는군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거나, 또는 누군가

“미국에 저의 아저씨가 한 분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는 웃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 옷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이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 남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 하지 못함.

(바) 회색 외투를 걸친 이 늙은 남자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 이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 그는 침묵했고, 자기 자신하고만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게 되어 버렸다.

▶ 남자가 사회로부터 [] 됨.

07 이 글에서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언어 발달 과정
- ② 나라별 단어의 수와 분류
- ③ 언어를 통한 소통의 문제
- ④ 언어 변화의 원인과 결과
- ⑤ 명사와 동사의 쓰임의 차이

08 (가)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언어의 본질은?

- ① 언어를 구성하는 내용과 형식은 필연적인 이유가 없이 자의적으로 결합한다.
- ②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일정한 약속 체계라 할 수 있다.
- ③ 언어에도 스포츠와 같은 규칙이 있어 규칙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소통하기 어렵다.
- ④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말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아 인간의 언어는 무한히 창조될 수 있는 속성을 지녔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소리가 뜻이 달라지기도 하며 있던 말이 사라지기도 한다.

09 ㉠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임의적 ② 수동적 ③ 이기적
- ④ 독창적 ⑤ 비유적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자가 사회와의 소통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을 표현한다.
- ② 남자가 마음대로 바꾼 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들이다.
- ③ 다른 사람과 남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더 이상 같은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 ④ 다른 사람과 남자는 하나의 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른 형식을 사용한 것이다.
- ⑤ 남자가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서 예의 없는 언어를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1 ㉠과 ㉡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 ㉠ ㉡
- ① 일상적 언어 - 공식적 언어
- ② 사회적 언어 - 개인적 언어
- ③ 남성적 언어 - 여성적 언어
- ④ 유아적 언어 - 성인의 언어
- ⑤ 지역적 언어 - 공용의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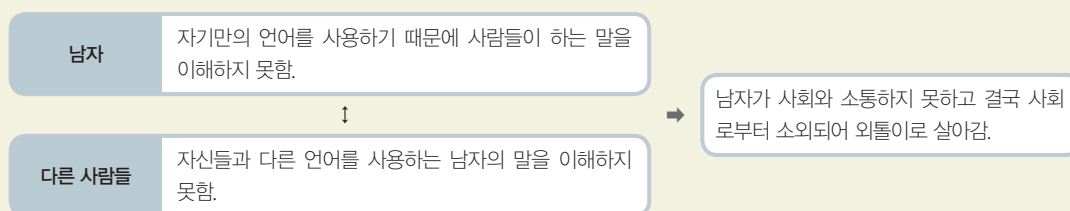
12 (가)~(다)를 바탕으로 하여, <조건>에 맞게 (라)를 일반적인 언어 표현으로 바꾸어 쓰시오.

◀ 조건 ▶

-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하되, 반복되는 표현은 생략할 것.

100점 특강

남자의 비극적 상황



→ 이 이야기에서 남자의 행위는 언어의 사회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립한 무언의 약속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남자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깨고 마음대로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었으며, 결국 그 언어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남자는 그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게 되었다.

3 우리말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넘친다

공규택

지문 연구

- **해제:** 이 글은 우리말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의 실상을 소개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한 학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주제:** 한자어의 실상과 우리말로 대체하려는 노력의 필요성

내용 연구

우리말에 쓰이는 한자어의 특성

- 정치권의 위정자나 학문, 종교, 예술 등의 분야에 있던 전문가가 수입하여 전문어가 많음.
- 구체적인 사물은 물론, 기본적인 술어와 부사, 접속어도 한자어로 대체됨.

우리말 어휘 중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

구절 풀이

- 이미 일상에서 ~ 참 많다.: 한자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익숙해진 말이 많음을 의미한다.
- 이유가 무엇이든, ~ 다를 게 없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 중국산 공산품이 널리 쓰이는 것처럼 한자어가 많이 쓰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낱말 풀이

- * 위정자: 정치를 하는 사람.
- * 추상어: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는 말.
- * 토박이말: 해당 언어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
- * 만행: 아만스러운 행위.
- * 어원: 어떤 단어의 근원적인 형태. 또는 어떤 말이 생겨난 근원.
- * 토종어: 토박이말.
- * 왜곡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했다고.

(가) 우리말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얼마나 될까? 이미 일상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는 그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말이 참 많다. 바로 예부터 사용해 오던 한자어가 그렇다. 우리말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70퍼센트 정도이다. 일상 대화에서 쓰이는 말 가운데 순수한 우리말은 30퍼센트가 채 안 되는 셈이다.

▶ 우리말의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

(나)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가 비슷한 사정이다. 그런데 왜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어휘까지 한자가 차지하고 있을까? 한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뒤로 문자를 통해 중국과 교류한 사람들은 주로 정치권의 위정자나 학문, 종교, 예술 등의 분야에 있던 전문가였다. 그렇다면 우리 어휘 체계에 침투한 한자어는 전문어나 학술어 같은 추상어에 그쳐야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말에 뿌리박은 한자어를 살펴보면 가장 기초적인 어휘까지 한자어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사물은 물론이거니와 아주 기본적인 서술하는 말, ㉠ 꾸미는 말, 이어 주는 말까지도 우리말이 아닌 한자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 은/는 물론, 기초적인 어휘까지도 한자어로 대체됨.

(다) 원로 국어학자 정재도 선생은 술한 토박이말을 한자어로 둔갑시켜 사전에 올린 것은 일제가 저지른 만행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일제가 '잠깐'이라는 우리말을 한자어로 바꾸려고 '잠시간(暫時時間)'이라는 헛것을 만들어 놓고, 잠시(暫時)나 잠간(暫間)이 그 준말이라고 하여 '잠깐'의 어원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 일제가 이런 식으로 수많은 한자어를 만들어 내고 '조선에는 원래 토종어가 거의 없으며 70퍼센트가 한자어에서 온 것'이라고 왜곡했다고 한다.

▶ 우리말에 한자어가 많은 이유를 일제의 만행 때문으로 보는 시각

(라)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말보다 한자어가 더 많이 실려 있는 국어사전은 오늘날 중국산 공산품이 곳곳에 스며든 현실과 다를 게 없다. 공산품에는 최소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표시라도 있지만, 말에는 그런 표시도 없지 않은가. 최소한 우리말이 아니라는 것만이라도 알고 써야 하지 않을까?

▶ 한자어 표시도 없이 에 많이 실려 있는 한자어

(마) 한자어를 우리말 체계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낼 수도 없는 형편이다. 한자어를 몰아내면, 그 빈 자리를 대신 채워 줄 순우리말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조차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가령 '나와 제일 친한 친구가 지각을 해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다.'라는 문장을 보자. 이 문장을 보면 한자어를 우리말로 충분히 바꿔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와 같이 바꾸었을 때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은가?

▶ 한자어를 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함.

중요

01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우리말에 쓰이는 한자어는 대부분 전문어이다.
- ②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 한자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 ③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이다.
- ④ 한자어를 모두 우리말로 바꾸어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⑤ 우리말의 한자어 중에는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

02 (나)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을은 파란 하늘로 다가옵니다.
- ② 대학생이 되어 교정을 거닐고 싶다.
- ③ 우천 시 행사가 연기됨을 알립니다.
- ④ 씨름에서 발다리 걸기는 난해한 기술이다.
- ⑤ 어휘의 팽창 양상은 복합 요인에 의거한다.

03 (라)를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 ① 한자어를 그 의미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 ② 한자어를 쓰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③ 국어사전에 표시도 없이 실린 한자어가 많다.
- ④ 일본식 한자어를 모두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
- ⑤ 국어사전에 실린 우리말 어휘를 바꾸어야 한다.

04 밑줄 친 말이 ㉠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멈추면 비로소 보입니다.
- ②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갈게요.
- ③ 거기까지는 얼마나 멀어요?
- ④ 그 건물이 굉장히 크고 멋졌다.
- ⑤ 따라서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05 ㉡의 이유를 표현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할 때를 아는 사람이 침묵할 때를 안다.
- ② 말은 그 민족의 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 ③ 부주의한 말 한 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된다.
- ④ 진실한 말에는 꾸밈이 없고 꾸미는 말에는 진실이 없다.
- 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에 들어간다.

서술형

06 ㉢에 들어갈 문장을 <조건>에 맞게 바꾸어 쓰시오.

조건

- ㉢의 앞에 나온 예시문에 쓰인 모든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바꿀 것.
- 한 문장으로 쓸 것.

100점 특강

‘우리말’에 한자어가 많은 이유에 대한 어느 학자의 주장

국어사전에 실린 한자어 중 일제가 만든 것들이 많다.

일제가 원래 없던 한자어 ‘잠시간(暫時時間)’을 만들어 놓고, 실제 사용하고 있던 ‘잠시(暫時)’, ‘잠간(暫間)’이 ‘잠시간’의 준말이라고 주장함.

↓

우리말 ‘잠깐’을 한자어 ‘잠간(暫間)’에서 나온 말로 바꾸어 버림.

↓

우리말에 토종어(순우리말)가 많이 없으며, 한자어에서 만들어진 말임을 주장하기 위한 일제의 농간

→ ‘국어사전에 실린 한자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살펴보고, 가능한 것이라도 우리말로 바꾸어 쓰자.’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어휘 체계

개념 압축 APP

1 언어의 본질

- **기호성**: 언어는 내용과 ()이 결합하여 성립된 기호 체계이다.
- **자의성**: 의미와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의 관계가 ()이지 않고 임의적이다.
- **사회성**: 언어는 한 언어 사회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이다.
- **역사성**: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 (): 이미 익힌 언어를 통해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 쓸 수 있다.
- **규칙성**: 언어는 각 언어마다 지켜야 할 일정한 법칙이 있다.

2 국어의 어휘 체계

(1) 어휘 체계 분류의 기준: 어휘의 기원(어원)

- ① (): 본디부터 우리말에 있었거나 그것을 기초로 새로 만들어진 순우리말
 예 어머니, 밥, 가다, 구수하다, 졸졸, 노르스름하다 등
- ② 한자어: 중국의 한자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
 예 우정(友情), 시계(時計), 평화(平和), 수리(修理), 수정(修整) 등
- ③ 외래어: 외국어로부터 빌려 와서 ()처럼 쓰는 말
 예 버스(bus), 피아노(piano), 커피(coffee), 세일(sail) 등

③ 국어의 어휘 양상

(1) 표준어: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규범으로 정한 말

(2) 방언: 하나의 언어에서 지역이나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말

- ① () 방언: 지역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말
예 옥수수 - 옥시기(강원도), 강내이(경상도), 옥수깥이(충청도) 등
- ② () 방언: 연령, 성별, 계층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말
예 낚다 - 좇은 기사를 취재하다(기자 집단), 낚대 - 꿈(심마니 집단)

필수 어휘 사전

- **기호:** 기호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쓰는 부호, 문자, 표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나 감정, 지식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어떤 것들을 외적인 대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 **표준어:** 우리나라의 경우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표준어 규정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교양 있는 사람들’은 사회 계층의 제한, ‘현대’는 시대적 제한, ‘서울말’은 지역적 제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두루 쓰는’이라는 말을 통해 보편성,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소통의 도구로 인정하고 있는 말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확인 문제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언어의 본질을 <보기>에서 찾아 그 기호를 쓰시오.

◀ 보기 ▶

- ㉠ 자의성 ㉡ 사회성
㉢ 역사성 ㉣ 창조성
㉤ 규칙성

- (1) 언어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다.()
- (2) 언어의 의미와 형식은 임의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 (3)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 언어가 지켜야 할 규칙을 따른다.()

2. 다음 단어가 고유어이면 ‘고’, 한자어이면 ‘한’, 외래어이면 ‘외’로 표시하시오.

- (1) 학생, 친절, 시장
..... ()
- (2) 피아노, 빵, 버스
..... ()
- (3) 머리, 놀다, 빗물
..... ()

3.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국어 어휘의 양상에 대한 설
명을 완성하시오.

- (1) ()은/는 지역 간의
거리가 멀수록 차이가
크다.
- (2) ‘자네’, ‘하시게’와 같은
표현은 연령대에 따른
()이다.

고려

3. (1) 1월 1일 기준

2. (1) ㄹ (2) ㅎ (3) ㄱ

1. (1) (2) (3) (4)

[illegible]



학습 목표

-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 국어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이해하고 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

학습 활동 따라잡기

1 다음 대화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언어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두 써 보자.

승우: 정은아, 너 '가시개'라는 말 들어 봤어? 우리 할머니는 '가위'를 '가시개'라고 하셔.

정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나 보네.

승우: 근데 왜 경상도에서는 '가위'라고 하지 않고 '가시개'라고 할까?

정은: 그야 '가위'를 반드시 '가위'라는 말로만 나타내야 한다는 법이 없으니까.

승우: 응?

정은: 경상도에서는 '가위'를 '가시개'라고 이름 붙이고, 서로 그렇게 부르기로 은연 중에 약속이 되었던 거지. 우리가 '가위'라고 이름 붙이고 그렇게 쓰기로 약속하여 쓰는 것처럼.

승우: 그럼 오늘부터 우리끼리 '가위'를 '자르개'라고 이름 붙이고 약속하면 되는 거야?

정은: 호호, 승우가 재미있는 말을 만들어 냈네. 그런 말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자르개'가 단어가 되려면 그 말을 쓰는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해.

승우: 에이, 복잡하군. 그럼 그냥 '가위'라고 해야겠어.

2 다음 고속 도로 전광판의 문구를 비교해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과속 금지

(나) 허벌나게 빠르구만요, 쉬엄쉬엄 가시랑게요.

- (1) 국어의 어휘 체계와 양상을 바탕으로, (가)와 (나)의 어휘의 특징을 말해 보자.
- (2) (가)와 (나) 전광판의 효과를 비교하여 말해 보자.
- (3) (나)와 같이 지역 방언을 활용한 홍보 문구를 찾아보자.



끌어 주기

◎ 언어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활동이다. 지역마다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이 다르다는 점, 그 표현이 그 지역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는 언어의 본질을 떠올려 본다.

예시 답안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창조성

◎ 고속 도로 전광판의 한자어와 순우리말,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쓰임의 차이를 바르게 파악해 보는 활동이다.

(1) (가)와 (나)에 쓰인 어휘들이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표준어인지 방언인지 구별해 본다.

예시 답안 (가) 표준어, 한자어
(나) 방언, 고유어

(2) 순우리말인 지역 방언 사용의 효과를 말해 본다.

예시 답안 (가) 간결하고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나) 정겹고 친밀한 느낌을 준다.

(3) 고속 도로 전광판 및 관광지 환영 문구 등에서 지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방언을 쓴 문구를 찾아본다.

예시 답안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부산 자갈치 시장), 줄음운전하다 식겁합니데이~(경상도), 원가 허전하쥬? 안전띠 매유~(충청도)

1 언어의 본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하게 마시는 물 한 잔, 건강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 이때 ‘물’이라는 말을 살펴보자. ‘무색, 무미의 액체’, 컵에 담겨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는 ‘무색, 무미의 액체’, ‘그것’을 ‘물’이라는 글자나 음성으로 드러내어 서로 소통을 한다.

나 ① 언어의 형식이 언어권마다 다르다고 하여 한 언어권 안에서 개인이 마음대로 형식을 바꾸어 쓸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물’을 ‘불’이라고 바꾸어 “물 한 잔 줘.”라는 표현을 “불 한 잔 줘.”라고 말한다면 올바른 소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일정한 의미를 표현하는 형식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약속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언어에 대한 사회적 약속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가 ‘물’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조선 시대에는 ‘물’이라는 형식으로 표시했다. 즉 조선 시대에는 ‘물’이라는 형식으로 약속했다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물’이라는 형식을 쓰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라 언어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며, ① 새로운 문물의 유입에 따른 새로운 말의 생성, 사회 변화에 따른 언어의 의미나 소리의 변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라 언어는 실제 사용될 때 일정한 규칙에 따르는 성향이 있다. ‘시원한 물 좀 마셔.’라는 언어 표현은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이 정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 표현을 ‘물 좀 시원한 마셔.’라고 바꾸어 쓰면 규칙에 어긋나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된다. 이러한 규칙은 언어를 쉽게 익히도록 하며,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규범이 된다.

마 하나의 단어나 문장의 규칙을 익힌 후에는 그 규칙을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시원한 물 좀 마셔.’라는 말을 통해 규칙을 익혔다면 ‘시원한 음료 좀 마셔.’라는 말을 만들어 쓸 수 있다. 또한 ‘차가운 물 좀 마셔.’와 같은 말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점은 동물의 언어와 달리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가장 큰 특성이다.

학습 목표 응용

0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 ② 언어 사용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언어의 본질적인 특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④ 인간의 언어의 역사를 지역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⑤ 언어의 다양한 기능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02 (가)~(마)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물’은 일정한 내용과 일정한 형식이 결합한 언어이다.
- ② ‘물’이라는 글자나 음성은 언어가 갖추어야 할 형식에 해당한다.
- ③ ‘물’은 ‘무색, 무미의 액체’, 컵에 담겨 있는 ‘그것’을 의미한다.
- ④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물’이라는 글자나 음성을 통해 소통이 가능하다.
- ⑤ ‘물’이라는 글자나 음성은 ‘무색, 무미의 액체’, 컵에 담겨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의미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03 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어의 본질은?

- ① 언어의 기호성 ② 언어의 자의성
- ③ 언어의 역사성 ④ 언어의 창조성
- ⑤ 언어의 규칙성

04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 보기 ▶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은 ‘물’이라고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water’라는 형식을 사용한다. 이것은 기호로서의 언어가 그 의미와 필연적 관계가 아님을 보여 준다. ‘물’이라는 형식 또는 기호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서로 ()하여 만든 것이다.

고난도 응용

중요

01 <보기>는 (다)와 관련하여 심화 학습한 자료이다. 밑줄 친 부분의 예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어휘가 소멸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 어휘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라짐으로써 그 어휘를 쓸 필요가 없어지면서 소멸되는 경우이다. <중략> 둘째, 같은 대상을 표현하던 말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한쪽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이다. 대체로 한자어와 순우리말의 경쟁에서 순우리말이 사라지는 일이 많았는데, ‘가람’과 ‘강(江)’에서 ‘가람’이 사라진 것이 그 예이다.

- ① ‘꽃’은 예전의 ‘꽃’의 발음과 표기가 달라진 말이다.
- ② ‘임금’은 ‘왕(王)’이라는 한자어와 함께 쓰여 온 말이다.
- ③ ‘즈믄’은 ‘천(千)’이라는 한자어에 밀려 지금은 쓰이지 않는 말이다.
- ④ ‘나이가 적다’의 의미를 지닌 ‘어리다’는 예전에 ‘어리석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⑤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을 부르던 ‘영감’이라는 말은 지금은 다른 의미로 쓰인다.

02 ㉠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어식의 외래어가 늘어나고 있다.
- ② 재미있는 유행어가 발달하고 있다.
- ③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 ④ 다양한 지역의 지역 방언이 표준어로 인정받고 있다.
- ⑤ 집단 특유의 은어가 일반인에게도 널리 퍼져 쓰이고 있다.

서술형

03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문장을 규칙에 맞게 고치고, 적용된 규칙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보기 ▶

국어의 문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배열되며, 수식어는 수식을 받는 말 앞에 위치한다. 문장의 각 구성 요소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며 높임, 시제 등 적절한 의미 관계에 맞게 서로 호응하여 배치된다.

할머니가 맛있는 과자를 주었다.

소단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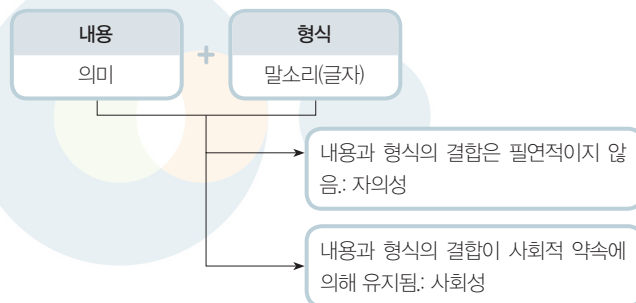
갈래	()하는 글
성격	객관적, 예시적
주제	언어의 ()
특징	- 언어의 본질을 구체적 ()을/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각각의 문단에서 설명 대상을 일정한 비중으로 설명하고 있다.

▶ 언어의 기호성: 언어는 일종의 기호이다.

언어 = 말소리(글자) + 의미

‘꽃’ =  (내용, 의미) + [꽃]이라는 발음 또는 ‘꽃’이라는 글자 (형식)

▶ 언어의 자의성과 사회성



▶ 언어의 역사성과 창조성: 언어는 역사성이 있어 새롭게 만들어지고 의미나 소리가 달라지기도 하고 쓰이던 말이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말이 생겨나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 때문이다.

▶ 언어의 규칙성: 언어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한글 맞춤법 제10조

출제 포인트

- 이 글은 언어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 글을 통해 언어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각각의 본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익혀 두어야 한다.
- 특히 언어의 자의성과 사회성, 역사성에 대해 올바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2

책상은 책상이다

| 페터 빅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똑같은 의자, 침대, 사진. 나는 언제나 책상을 책상이라 말하고, 그림을 그림이라 말하고, 침대는 침대라 부르고, 의자는 의자라고 부른다. 도대체 왜 그렇게 불려야만 한단 말인가?'

프랑스인들은 침대를 '리', 책상을 '타블'이라고 말하고, 그림은 '타블로', 의자는 '셰에즈'라 부른다. 그 말들을 사용하여 그들은 의견을 주고받는다. 중국인들도 그들끼리 역시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한다.

㉡'무엇 때문에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단 말인가.'

나 "이제는 달라지는 거다."

하고 그는 외쳤다. 그리고 지금부터 ㉢침대를 '사진'이라고 말하기로 했다.

"나는 피곤해. ㉣사진 속으로 들어갈 테야."

라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사진 속에 누워 있었다. 그림 의자는 무엇이라고 부를까,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는 ㉤의자를 '괘종시계'라고 부르기로 했다. 즉 그는 일어나면 옷을 입고 괘종시계 위에 앉아 책상 위에 팔을 짚었다. 그러나 ㉥책상은 이미 책상이라고 불리지 않았다.

책상은 이제 ㉦양탄자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 이 늙은 발은 오랫동안 사진 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아홉 시에 사진첩을 세워 놓았다. 이 발은 얼어 올라왔고 아침이 바라보지 않도록 이 발은 옷장 위에 자신을 펼쳤다.

㉨ 이 남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웃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누군가

㉩"당신은 내일도 축구 경기를 보러 가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듣거나, 또는 누군가

"벌써 두 달 동안이나 계속 비가 오는군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거나, 또는 누군가

"미국에 저의 아저씨가 한 분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는 웃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옷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이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 회색 외투를 걸친 이 늙은 남자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했고, 자기 자신하고만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게 되어 버렸다.

학습 목표 응용

01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마)의 '남자'에게 해 줄 수 있는 충고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 ② 경쟁심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 ③ 대화에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 ④ 서로 소통하려면 서로 공유하는 기호를 활용해야겠지요?
- ⑤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법을 잘 모르더군요.

02 ㉠의 구체적인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의 규칙을 일정하게 정하는 것
- ② 언어의 내용을 점점 더 확대하는 것
- ③ 언어의 내용과 형식을 임의로 결합하는 것
- ④ 시대에 따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쓰는 것
- ⑤ 언어의 형식을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정하는 것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 구성원들끼리 합의된 약속에 따라 만든 문장이다.
- ② '남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 ③ '남자'가 새로 만든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문장이다.
- ④ '남자'는 문장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여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다.
- ⑤ 언어의 규칙을 지키고 있어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

04 ㉠~㉥ 중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고난도 응용

중요

01 이 글의 '남자'의 행위에 대한 토의의 일부이다.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는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어. 남자의 말이 인정받으면 새로운 언어가 생기는 셈이야.
- ② 언어는 형식과 내용이 필요한데, 남자는 내용이 없이 형식만 내세우며 언어라고 우기고 있어.
- ③ 언어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남자가 말을 바꾸어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 ④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돼. 그래서 남자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어.
- ⑤ 언어의 형식과 내용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 남자가 대상의 형식을 바꿀 수 있었던 거지.

02 ㉠에 대한 답변에 언급될 수 있는 언어의 본질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언어를 통해 과거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나 정신적 자산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②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공동체를 형성하여 소속감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③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 ④ 언어를 매개로 하여 사회 구성원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 ⑤ 언어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약속이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어로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서술형

03 <보기>의 '청소년들'과 이 글의 '남자'의 언어 행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낄끼빠빠', '심쿵', '세젤예' 등은 청소년들 사이에 새롭게 쓰이고 있는 말들이다. 이것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합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묵인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말의 형성법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 앞으로도 그 규칙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말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건

- 언어의 본질을 두 가지 이상 언급할 것.

소단원 한눈에 보기

갈래	소설
배경	현대, 일상적인 공간
주제	사회적 () (으)로서의 언어의 특성
특징	•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 언어의 ()에 대하여 짙막한 에피소드 형식으로 전하고 있다.

▶ **언어의 자의성:** 언어는 특정한 의미를 특별한 형식으로 나타내는 일종의 기호인데, 여기서 의미와 형식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남자의 행위

특정한 의미를 담은 특별한 형식을 혼자서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사용함.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예

▶ **언어의 사회성:** 언어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다. 특정한 의미를 특별한 형식으로 나타내어 사회 내에서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 대하여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그 합의를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면 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남자의 행위

사회적 약속을 개인이 임의로 바꾸어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어려워짐.

언어의 사회성을 보여주는 예

유능 '독자' E

출제 포인트

- 이 글은 언어의 자의성과 사회성을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남자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통해 언어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